

프랑스 관광시장 동향 [7월]

'26. 7. 29 (수) / 파리지사

□ 프랑스 관광 소비자 동향

○ (일반 동향) 항공권 가격 변동 속 막판 예약 증가

- 프랑스 여행전문지 L'Écho Touristique가 발표한 '26.6월 항공권 가격 분석에 따르면, 중·단거리 노선 항공권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.7% 하락한 반면,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 등의 영향으로 1.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일본(+13%), 중국(+6%), 미국(+11%), 캐나다(+8%), 알제리(+19%) 등 주요 장거리 목적지의 항공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.
-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항공권 가격이 6% 상승했음에도 예약 순위가 전년 대비 30위 상승한 27위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, 베트남은 항공권 가격이 7% 하락하면서 23위, 말레이시아 28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여행수요 회복세가 확인됨.
- 또한 프랑스 최대 여행사 중 하나인 TUI France는 출발 1개월 이내 예약이 전년 대비 약 20% 증가했다고 발표함. 특히 스페인, 이탈리아, 모로코 등 중·단거리 목적지의 항공요금 인하로 성수기 직전 '막판 예약(Last Minute Booking)'이 증가함.

○ (산악관광) 하이킹 중심에서 문화체험 관광으로 콘텐츠 확대

- 프랑스 관광공사(Atout France)가 발표한 'Baromètre Montagne 2026(프랑스 산악지표 2026)'에 따르면 최근 3년간('23-'25) 프랑스인의 30%가 봄·가을 산악지역 숙박여행을 경험했으며, '25년 산악관광 만족도는 전년 대비 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 산악관광은 하이킹

중심에서 문화유산 탐방, 미식, 지역축제, 자연체험 등 체험형 관광을 포함한 상품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, 폭염을 피해 상대적으로 시원한 산악지역을 찾는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(방한성장세) 글로벌 eSIM 구매 데이터 기반 한국 인기 여행지 부상
 - 글로벌 eSIM 플랫폼 Airalo의 '26년 여름철(6~8월) 프랑스 이용자 eSIM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, 한국 eSIM 구매량은 전년 대비 **210%** 증가하여 페루(+299%), 알제리(+206%)와 함께 프랑스인의 주요 장거리 인기 여행지로 나타남.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출국세 부과 등 여행비용 상승으로 한국이 일본 대체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, K-컬처와 문화체험 수요 증가가 방한 여행 수요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.

□ 프랑스 관광정책 동향

- (복지) 취약계층 대상 체크바캉스 추가 지원 시행
 - 프랑스 정부와 체크바캉스(프랑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, 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-Vacances)는 경제적 이유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약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**약 4천만 유로(한화 약 680억 원) 추가 휴가비 지원**을 실시함.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관광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됨.
- (숙박) 관광숙박시설 빈대 예방·관리 인증제도 도입
 - 프랑스 방역협회 Prosane에 따르면 빈대 방역의 약 20%가 관광 숙박 시설에서 발생하며, 이 가운데 호텔이 44%를 차지함. 프랑스 글로벌 시험·검사·인증기관 Bureau Veritas는 관광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예방·관리 민간 인증 라벨을 최초로 출시함. 호텔, 관광 레지던스, 캠핑장, 단기 임대 숙소 등을 대상으로 ▲직원 교육 ▲빈대 관리 담당자 지정 ▲전문 방역업체와의 48시간 이내 대응체계 구축 ▲연 1회 점검 등

예방·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갱신함.

○ (친환경)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전환 지원 확대

-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(ADEME)은 '26.1월 관광숙박업계를 대상으로 'Hébergements touristiques, engagez-vous dans la transition écologique(역: 관광숙박시설의 친환경 전환 참여)'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호텔·캠핑장·관광 레지던스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전환을 위한 진단, 교육, 컨설팅, 사업별 보조금지원 및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. 지원 범위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(단열·고효율 냉난방),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설비, 물 절약 및 빗물 활용,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, 관광사업자의 운영비 절감과 폭염 등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.

□ 폭염·산불 및 기후변화 대응 관광 동향

○ 산불 확산에 따른 자연관광지 출입 통제 및 안전관리 강화

- 7월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간 가뭄의 영향으로 프랑스 남서부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며, 올해 누적 산불 피해면적은 약 11만 5천 헥타르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. 특히 지롱드(Gironde) 지역에서만 약 4만 2천 헥타르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자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합동 위기대응회의(Cellule interministérielle de crise)를 주재하고 소방 인력과 항공 진화자원 추가 투입, 주민 보호 및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함.

○ 기후변화 대응 산악관광 사계절 관광지 전환 추진

- 프랑스 관광공사(Atout France)는 기후변화로 인한 적설량 감소와 겨울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지역을 사계절 관광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. 기존 겨울 스키 중심 관광에서 벗

어나 하이킹, 자전거, 웰니스, 미식, 문화체험, 자연휴양 등 여름·가을 관광상품을 확대하여 지역 관광수요를 연중 분산시키는 전략임.

- 또한 'France Tourisme Ingénierie - Rénovation des stations(역:프랑스 관광엔지니어링-산악 리조트 재생사업)' 사업을 통해 산악 리조트의 노후 관광숙박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.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'Régénération Montagnes(역: 산악지역 재생 프로젝트)' 논의에서는 지방정부, 금융기관, 관광업계와 함께 2034년까지 산악지역 관광숙박시설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※ 출처: 프랑스 생태전환·생물다양성·산림·해양·수산부(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, de la Biodiversité, de la Forêt, de la Mer et de la Pêche), 환경에너지관리청(ADEME), 프랑스 국립 산림청(ONF), 주요 언론(Le Figaro, RTL) 및 주요 관광정보지(L'Echotouristique, Tourmag)등 참조